

수협 탐방

<15> 완도소안수협

태풍·대출 피해 극복...‘희망’ 아이콘

수심 깊고 조류 빨라 해조류·어패류 품질 최고

지난해 10억 흑자...연체율 26%→9.7% 개선

항일운동의 성지 섬 소안과 갯벌이 살아 있는 바다의 섬 노화, 천혜의 난대상록수림을 자랑하는 보길.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를 가진 섬 청산. ‘진북’ 하면 떠오르는 완도는 다도해 공원 지역으로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빨라 무공해지역으로 꼽히며 해조류와 어패류 등 모든 생산품이 품질 좋기로 유명하다.

탁월한 환경을 자랑하는 이 곳에 전북처럼 탄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완도소안수협(조합장 장명순)이 있다. 1991년 완도군수협에서 분할돼 조합원 2400여명, 6개의 섬과 62개 어촌계를 품은 지금의 완도소안수협

로 성장하기까지 험난한 역경을 견뎌왔다.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조합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은데다 광주 쌍촌동지점의 불법대출로 2011년 결산에서 32억원의 결손과 연체율이 26%에 달하는 등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인 법. 완도소안수협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 임·직원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경영정상화에 매달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조합원과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지난해 결산결과 10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연체율도 9.7%로 크게 개선됐다. 이로써 경영실태도 ‘자본 잠식 조



장명순 조합장

합’에서 ‘자본 일부 잠식 조합’으로 상환되는 등 경영정상화에 한 발 다가섰다.

또 최근에는 보길도에 보길지점을 열고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출장소로 운영돼 그동안 면세 유류사업과 물자 공급업무만을 했기 때문에 조합원과 어민들은 금융 업무를 위해 노화읍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지점이 개소하면서 정책자금과 양식보험 등을 함께 취급할 수 있어 금융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10월말 현재 3977000여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고, 올해에만 325건 817억1500만원의 전복양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완도소안수협의 최대 현안은 연간 2000억원대 대량생산되는 전복위판사업이다. 물길위판사업위주의 경제사업에서 벗어나 경영정상화로 가기 위해서 전복위판사업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완도군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복산업특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사업이라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 유통업체가 난립된 상태에서 위판이 쉽지않은 상태였다.

조합은 조합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대형유통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전복위판사업을 추진하자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교육에도 열심이다. 2000여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대책에 대해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장 조합장은 “모든 임·직원이 경영정상화를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희망을 잃지 말고 어업인이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수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완도소안수협은 특산물인 전복의 안정적인 유통을 통한 어업인의 수익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중 FTA 수산물 분야

해수부 “수산물 개방폭 36%...선방했다”

멸치·오징어·갈치·김 등 20가지 ‘초민감 품목’에 포함

미역·굴 등 2%P 이내 제한적 관세 감축...피해 최소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 수산물 분야는 양호한 협상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0일 한중 양국간 FTA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정부는 수산물 수입액의 64.3%를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켰다.

중국은 핵심 쟁점 중 농수산물 분야에서 ▲국내에서 많이 잡히는 30~40개 어종의 수출 확대 ▲불법어업 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특혜관세 제외 등 그동안 우리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앞서 미국 및 유럽 연합(EU)과 체결한 FTA와 비교해서도 국내 수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대(중국) 전체 수산물 교역액을 기준으로 64.3%를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계절관세 등을 부과하는 등의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켰다.

20년 안에 관세철폐에 합의한 민간품목은 35.5%, 10년내 관세철폐를 약속한 일반품목은 0.2%에 불과하다.

아울러 20년 후 관세가 철폐되는 수산물 자율화율(수입액 기준)은 35.7%로, 한·미FTA(100%), 한·EU(99.3%) FTA와 비교해서도 선방했다. 수산물 품목수 기준으로도 양호한 결과를 얻어냈다. 품목별로는 멸치, 오징어, 갈치, 넙치, 고등어, 꽃게, 조기, 전복, 김 등 국내에서 잡히는 20가지 품목 대부분은 초민감품목에 포함됐다. 이는 전체 생산액의 85.3% 수준이다.

백장어, 농어, 민어, 돔 등 조정관세품목과 홍어, 전갱이, 대게, 소라 등 자원관리품목 대부분도 초민감품목에 분류됐다. 이들 초민감품목(64.3%)에 대해서는 양허제외(30.4%), 저율할당관세(TRQ, 29.2%), 관세감축(4.7%)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미역, 굴, 대구 등 높은 관세 품목은 2%p 이내 제한적으로 관세를 감축하기로 해 시장피해를 최소화했다.

냉동 낙지와 냉동 아귀 등 중국 2차 리퀘스트 중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는 TRQ를 부과기로 했다. TRQ는 수급에 맞춰 관세를 적

용하는 데 할당량을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만 고관세를 매겨 수입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초민감품목에 포함되지 못한 나머지 품목은 향후 15년 후부터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나가게 된다. 이중 20년내 관세를 철폐하는 민감품목에는 새우류, 냉동 새우살 등이 있으며, 연어·패각 등은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한 일반품목에 속한다.

해수부는 단기적(10년내)으로 철폐되는 일반품목이 0.2%에 불과해 한중 FTA가 국내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국은 수산물 분야에서 한 품목도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중국은 수산물을 일반품목군으로 분류해 한중FTA 합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해 나가게 된다.

따라서 김, 미역, 전복 등 우리 주요수출품목 대부분이 즉시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로 합의돼 대 중국 시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어선이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경우 특혜관세를 주지 않겠다는 우리 측의 요구안도 사실상 받아들여졌다. /김대성기자 bigkim@

25년 후 농업기술 미리 체험 한국출란 대전

농협 농업박물관, 6월까지 특별기획전

15일부터 서울 aT센터

농협 농업박물관은 2040년 미래 농업기술과 농민의 주거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미래농업 특별기획전을 6월까지 연다고 12일 밝혔다.

‘미리보는 미래농업, 꿈과 희망을 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제1부 미래농장 컨트롤타워와 제2부 미래농부의 주거와 생활로 이뤄져 있다.

미래농장 컨트롤타워 전시실에서 관람객이 직접 종자보관소의 종자를 선택해 분석센터와 생산제어시스템을 통해 로봇에게 작업지시를 내리고 기후, 병충해, 생산량, 가격 변동 등 농업관련 각종 빅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농업예측시스템도

관람할 수 있다.

미래농부의 주거와 문화 전시실은 각종 첨단시스템이 갖춘 미래농부의 생활공간으로 디지털 농사달력, 농장 원격 모니터링, 온라인 직거래시스템 등 다양한 농업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 LED조명으로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는 자연치유실을 운영하고, 스마트폰으로 탐사용 농업로봇을 직접 조작해 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국출란 전국대전이 15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서울에서 20년만에 열리는 이번 전국대전에는 전국의 명품과 희귀품 등 수천만원을 넘는 난이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2일 밝혔다.

aT는 전국대전에 앞서 14일 한국출란 제4차 경매도 발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출란뿐만 아니라, 풍란, 석곡, 한란 및 중국·일본 난 등 1천여점이 출품될 예정이며 행사기간에 세미나, 난 클리닉, 난 판매전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개최한다고 aT는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조미김에 혼합된 파래 판별 ‘DNA 마커’ 개발 국립수산물연구원

국립수산물연구원 수산식품품질관리센터는 가공 처리된 조미김에 혼합된 파래종류를 판별해 내는 DNA 마커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에 파래류를 혼합(30~40%)하는 것은 김 자체의 구수하고 고소한 맛과 파래의 씹스름한 맛을 내면서 칼륨 및 칼슘 성분이 보강되므로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맞출 수 있

다. 현재 파래를 섞어 유통되는 가공김은 부원료인 파래의 종류에 따라 주로 잎파래를 사용하던 ‘파래김’, 가시파래를 사용하면 ‘감태김’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김 제조과정에서 파래는 작은 조각으로 잘려서 혼합되기 때문에 상품명만으로 부재료를 사용된 파래의 종류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에 수산식품품질관리센터는 유통 김에 혼합된 잎파래와 가시파래의 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 DNA 마커를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DNA 마커는 열차리로 가공된 김 제품에서도 생분류 유전자 정보를 읽을 수 있어 파래류의 종을 판별해 낼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롬행정고시학원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361-8111

전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학원 새롬행정고시학원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민법 백현 학개론 임진택 공법 이강철
중개법 홍덕기 공시법 안규채 세법 임기원

개강 11월 10일 주부반 11월~12월 기조과정 전과목 강의 합니다.
성인반 인터넷 동영상 수업은 무료

합격률 1위 신법각주들이 추천한 1등학원

합격을 위한 새롬만의 차별화된 시스템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입문과 심화를 주는 학원 1위
-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력 1위

“새롬” 전국 수석합격자 2명 배출

광주새롬학원에서 제 15회~제 24회 시험까지 2000여명 합격자 배출!

직업상담사 특강(주·야)

학원홈페이지 한글주소 검색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학원카페 다음카페 검색창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새롬 행정고시학원 광주 동성동 서구청앞 광우은행 2층 본원 ☎361-8111

NAVER *가성비* 대비플라워 *농거래*

대비플라워

죽자화완3단 근조화완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자산건전성 8년 연속 1등급 달성!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최저 연 3.5%~

햇살론 대출 **최고 2천만원** **최고 1억원** 신용대출
아파트 전세 보증금 대출 **최고 80%**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충장지점: 223-7217, 223-7218

대인본점: 전남여고, 구도정, 밀리오레, 세티은행, 대인파출소, 대인시장, 대인광장, 유동

충장지점: 구도정, 송파, 두리은행, 연덕구청, 남성병원, 광주일고, 유동, 누분동